

# 제동 걸린 전기차 특구... 사업 차질 불가피

### 중기부 1차 심의 대상서 제주 제외... 일부 보완 요구도, 최종계획 제출 보유한 뒤 2차 모집 재도전하기로 특구 사업-지역경제 연계 포함 사업계획 수정 예고

제주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당분간 관련 계획들이 중단되거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심의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을 세종과 충북,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강원 등 지자체 7곳으로 압축하고 제주 포함 울산, 전북 등 3곳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도는 최종 계획서 제출 계획을 보류하고, 2차 협의 대상 모집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1

차 심의에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중기부는 제주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방향 제시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경우 보급 인프라가 잘 돼 있지만 지역경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 특구 계획은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사업 분야는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도입 및 이용편의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 서비스 ▷3D프린터로 만드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분산형멀티충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xEV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됐다. 대체로 특구 내 사업들의 지원을 돕는 내용에 집중돼 있어 지역연계 방안 등이 요구된 셈이다.

제주도는 중기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사업계획을 전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의견수렴 등의 특구 관련 행정절차도 중단한다. 2차 협의대상 신청에 들어가면 기존 1차 심의 때 진행했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 전기차 특구 콘셉트가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참여기업이 일부 배제되거나 신규업체가 추가되

는 등 수정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보 진전을 위한 일부 후퇴"라며 "7월 1차 특구 대상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탈락으로 보긴 힘들다. 다만 중기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내실 있게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으로 확대하면서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돌파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면적은 4.9km<sup>2</sup> 규모다. 지정기간은 4년이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참여기업에 대한 규제적용이 완화되고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이 이뤄진 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3일 서귀포시 효돈동 쇠소깍에 지난달 집중호우 때 해안으로 유입된 낙엽쓰레기를 담은 대형 마대가 곳곳에 수북이 쌓여있다. 해안에는 수거되지 못한 낙엽이 가득하다. 문미숙기자

## 치위도 끝없는 낙엽... 보름째 전쟁중

### 남원·효돈 등 지난 폭우 때 쌓인 낙엽쓰레기 수거 진땀 현재 수거량만도 수백톤

### 인력난 등에 속도 더더 앞으로 보름 더 소요 예상

속보=지난 5월 서귀포시 남원을 등에 하루 3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연이어 쏟아지며 해안가 마을에선 상류 하천에서 밀려든 낙엽 쓰레기(분보 5월 20일자 3면 보도)와의 전쟁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3일 서귀포시 효돈동 쇠소깍 검은 모래 해변에는 집중호우로 떠밀려온 낙엽을 수거해 담은 1t 크기의 대형 마대 수백개가 쌓여있다. 또 해안에는 아직도 높게는 1m 안팎의 낙엽이 쌓여있는 상태로, 평상시 아름답기로 이름난 해변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같은 낙엽 쓰레기는 지난달 열흘 사이에 연이어 서귀포시에 내린 집중호우 때문이다. 지난 18일 하루 동안 남원을 신례리에 43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데 이어 27일에는 신례리에 257mm의 비가 내렸다.

18일 내린 비로 효돈동 쇠소깍과 남원을 공천포, 태흥리 등 해안가에는 상류 하천에서 떠밀려온 낙엽 쓰

레기가 뒤덮으며 마을마다 수거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27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상당량의 낙엽이 또 해안가로 유입됐다.

현재 효돈동이 쇠소깍에서 수거해 1t 용량의 마대에 담아 해변 구석에 쌓아놓은 포대만 500개에 이른다. 하지만 등은 앞으로 1000포대 분량의 낙엽이 해안에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클레인을 동원해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작업환경으로 인력난까지 더해지며 낙엽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려면 보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돈동 관계자는 "수거한 낙엽은 농가에서 과수원 등에 친환경 퇴비로 활용하도록 희망농가에 무료 제공키로 해 4일부터 해안가에 쌓여온 것을 순차적으로 치울 계획"이라며 "쌓여있는 낙엽 수거에 보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을 신례리 공천포 해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남원읍이 공천포와 신흥리 해안가 등에서 현재까지 수거한 낙엽쓰레기만 350t에 이른다. 특히나 수거작업은 물때에 맞춰 이뤄지면서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남원읍의 경우 농가에 퇴비로 제공하고 남은 낙엽은 수거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 "제2공항 찬반 떠나 도민역량 모아야"

### 어제 공항범추협 설명회 도민혜택 방안 마련도 강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 기회가 마련됐다.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제주공항범추협')는 3일 오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상생발전 설명회를 열고 국토부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전달했다. >>사진 김대형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찬반을 떠나 제2공항 건설로

인한 효과가 예정지 주민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민역량을 모아야하자"면서 "국토부와 제주도정에서는 제2공항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현 제주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물론 공항개발과 연계한 주변발전계획수립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명회에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범도민추진협의회 차원의 제주공항운영권 참여방안을 비롯해 제2공항 토지수용에 따른 세제지원책 마련과 예정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제2공항 연계 교통인프라 확충, 제2공항 개발 지역건설사 참여방안 마련 등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공항범추협은 이날 제시된 각계의 의견들을 종합정리해 국토부와 제주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공항범추협은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대상 설명회와 더불어 예정지역 주민 보상방안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 청소년이 가능하게 한 도내 첫 복지정책 성산읍, 저소득층 중학생에 교통비 지원

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영현)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매월 교통비 지급에 나서 화제다. 성산읍은 지난 5월부터 저소득층 중학생 31명에게 매월 2만5000원의

교통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도내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는 성산읍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청소년기자단 '도팻'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교통비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접하면서 작년 12월 성산중학생 46명을 대상으로 등·하교 방법과 교통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설문 결과 93%의 학생이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성산읍은 청소년 복지정책의 일

환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연말까지 총 542만5000원이 지원된다.

정영현 성산읍장은 "중학생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들이 친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제안한 사업으로 어른들이 살펴보지 못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 등 모든 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 제주시 일자리 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만 6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생활환경 취직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6월 내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600여명, 클린하우스 세척 및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청소 인력 83명 등이며 채

용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지원 방법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채용공고를 통해 응시원서 등 지원 관련 서류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과 도비 예산 총 97억원으로 운영되며 보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시급 97000원)이 적용된다. 김현숙기자

## 개교 81주년! 행복한 만남, 하나되는 세초인

# 제10회 세화초등학교 동문의 날



**회장 오순금**

푸르름이 짙어 가는 6월에 세화초등학교 4천2백여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6월 9일(일) 09시 30분 (개회: 10시)

**장소** 세화초등학교 운동장

**대상** 세화초동문 및 가족

**주최/주관** 세화초등학교 총동문회

**팀구성 (4개팀)** 다량쉬오름, 아끈다량쉬오름, 용눈이오름, 성불오름

**종목** 풍선탑쌓기, 몸뚱바지잡고달리기, 줄다리기, 노래자랑 외

**고문**  
백홍실 정인삼 정동진 고성주 김태환 부준식 김대길 문재진 김수남 고유하 문재중 오인택

**자문위원**  
김창을 부두오 부상철 오문호 박재형 부영철 김인철 고성환 오창수 박재철 문정복 오용석 오항근 고성남 김석환 김순실 오영진 송여봉 문세영 정해정 조동건 부두은 정보승 김대운

**부회장**  
신동원 송성훈 고영욱 원종심 고성인 오경석 김성휴 김미란 강영순 장광삼 조승주 홍재순 김지균 김용선 정광택 조현주 김미애 김미희 강동원 문경진 문재은 부두원 오창원 오순택 차의준 김동현 김승균 문성만 정남희 정승택 이미자 김수현 오길용 김세균 김유돈 부영배 고정효 김진희 문경숙 강성길 문광석 김승돈 오영미

**일반이사(기수별 회장)**  
정민규 조철수 손준명 오영림 김은선 박은석 김경미 부경혜 이숙희 우금석 홍재진 강경택 윤상철 문준호 김현철 나윤택 부희주

**집행부 임원**

회장 오순금	직권회장 김홍근	상임부회장 김하균	감사 부원철 김경균
총무이사 김이돈	총무국장 이인선	총무차장 김인호	
기획이사 강석진	기획국장 김민수	기획차장 김해령	
재무이사 정석철	재무국장 강청아	재무차장 홍경숙	
조직이사 부대봉	조직국장 김학현	조직차장 채은숙	
여성이사 홍화순	여성국장 정정수	여성차장 정현숙	
체육이사 부두정	체육국장 문준호	체육차장 오춘자	
홍보이사 문정석	홍보국장 오미영	홍보차장 정신류	

**문의** 회장 010-9239-2866 총무이사 김이돈 010-6798-2277